

與 ‘곤혹’ 손혜원·서영교 의혹 野 ‘공세’

민주, 오늘 조사 결과 발표…처리방안 고심

한국당 “권력형 비리·의원 사법농단”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확산하자 고민이 깊어졌다.

민주당은 일단 두 의원의 해명을 들으며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지만, 추가 의혹 제기로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져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당의 진상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애초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추가 조사는 당사자들의 해명 요구가 있어서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두 의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아니고 사보임을 한다든가 당직을 내려놓는다든가…”라며 “징계는 아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고, 손 의원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거나 다른 상임위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전날보다 부정적 기류가 강해진 것은 의혹이 점점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의원 의혹의 경우 창성동 등 건물 2채는 손 복무 중인 조카 명의로 차명구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개발 중심

에 있던 사람인데 단 한 번도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가 나이에 목표에… (투기를 했겠느냐)”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반약 차명(구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조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역시 서 의원이 선고 사흘 전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의원은 “그 판사를 만난 기

역이 나지 않는다. 일정표를 확인해보고 있다”며 “(윤호중) 사무총장과 통화는 했는데 정식으로 만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호재를 만났다. 이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특히 이들 의혹을 ‘권력형 사건’으로 몰아붙이는 데도 주력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을 상징하는 실세에다 영부인과 각별한 관계”라며 “(손 의원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이라며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서 의원의 의혹에 대해 “여당 실세 의원이 사법농단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을 김정은 여사와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딴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이 정령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하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1월 임시국회 개회 공방

4야 공조에 민주당 “정쟁 위한 임시국회 안돼”

여야의 1월 임시국회 개회 갈등이 17일에도 계속됐다. 전날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야 4당의 공조에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 없는 ‘개접휴업’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가동 여부에 더해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등 쟁점 현안들도 수두룩한데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 여야 대치전선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재차 요구하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당과 공조해서 상임위가 열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당에 촉구한다. 철벽 방어를

하지 말고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적한 현안과 각종 민생·경제·개혁 법안 등을 쌓아두고도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꾀짜도 안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며 1월 임시국회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 회에서 1월 임시국회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폈다.

야당이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입법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과제가 제각각이어서 경우에 따라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정국 향배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 으로, 여당 압박을 위한 야 4당의 단일대오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당은 소극적 기로 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정적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알츠하이머라더니…전두환, 사람 맞나”

골프 논란에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맹비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 골프를 쳤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큰 충격을 넘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정 인간이면 이를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겠다”며 “법원은 역사의 죄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출석시켜 그가 뿌린 죄악의 역사에 대해 반드시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도 모자란데 심지어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며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장을 발부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성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씨의 골프장 목적 시점은 광주에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열린 시점이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역사의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방금 한 일도 기억 못해서 하루에 10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세계 의학계에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전대 눈치 작전’ 치열

황교안 입당에 경우의 수 늘어…대표·최고위원 놓고 고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당권주자들의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특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당대표 경선 출마가 유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격 입당으로 경주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심재철·조경태·주호영 의원 등은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기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사이에서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 후보는 17일 “이번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하려 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상대방의 출마 메시지가 일정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는 30일 열리는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때까지 상황을 보며 거취를 결정기로 했다. 앞으로 다른 전대 주자들의 교통정리 상황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대표 출마의 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황 전 총리의 캠프 구성, 선인 일정보와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뒤 택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미 대표 “국회 내 개혁 블록 만들자”

정의당 신년기자회견…“다당제 걸맞는 국회선진화법 필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개 중 4개당이 하자고 하는데 17당이 싫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다당제에 걸맞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경남 창원시 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정의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화전의 땅이 묻힌 창원성산 승리로 무산됐던 공동교섭단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027호

2019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공고

2019년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의 담당자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목적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미래 과학공부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KOITA)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회는 2018년부터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과 청소년들에게 전파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과학공부 지원을 목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① (연구개발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의 R&D 역량에 대해 중장기(중소기업 기술멘토링) 또는 단기 현장 기술멘토링(상시 현장지원) 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에 등 현장방문 중장기 지원			
- (상시 현장지원)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을 위한 단기 지원(3회 이내)			
구분	내용	주요내용	지원기간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개발	특정분야 기업 R&D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전문가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 예로해결 지원(1:1 방식)	협약 후 5개월 이내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공동	복합적인 기업 R&D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 예로해결 지원(1:다수 방식)	상시
상시 현장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상시
- (지원분야)			
구분	내용	주요내용	지원기간
기술지원	핵심기술, 보완기술, 제품기술, 공정기술 등 지원 및 자료 제공		
생산·시설	생산성 향상, 생산 공정 개선, 신규 공정 기획 등 지원		
기술마케팅	기술도입, 기술수출, 기술사업화 등		
기술경영	기술기획, 기술관리, 기술인프라, 기술사업화 등 기술경영 7개 분야		
기타	통·번역, 조세/인력/자금 등 지원제도 활용 등		
② 청소년 과학교육 :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 과학공부 지원 - 국립과학관의 전시주제 심층해설, 과학공부 지원사업 등			
○ 신청대상 :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정보 구축			
○ 추진일정			
구분	내용	기간	비고
연구개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80개 내외)	*19.2월 ~ 12월	기업 수요조사,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제신청 및 자료 실시
	○ 상시 현장지원(100건 내외)	*19.3월 ~ 12월	(홈페이지신청, www.reseat.or.kr)
청소년 과학교육	○ 국립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19.2월 ~ 12월	전문기관 위탁
	○ 과학공부 지원사업 등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정보 구축	○ 인력 DB 등록(전문분야, 경력 등)	연중	홈페이지등록 (www.reseat.or.kr)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 지원 부문		
- 고경력 과학기술인		
- 접수기간 : 2019. 2. 19(화) ~ 2. 25(월)		
- 제출서류 : 이력서, 연구실적(최근 10년 논문/자사제안서, 자기소개서/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공 및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기술멘토링 지원계획서 등)		
- 중소기업		
- 접수기간 : 2019. 1. 22(화) ~ 2. 15(금)		
- 제출서류 : 기술멘토링 지원신청서 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록절차		
인력 등록/경력관리(상시)	적격 심사(등록시 확인)	과제 참여(사업별 공고)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reseat.or.kr)	자격기준 확인, 등록 승인 (산기협)	과제확인 및 선정, 매칭 및 과제 수행 (산기협, 고경력인)

〈 선정 절차 및 일정 〉			
①기업과제 신청 (19.1월 ~ 2월)	②고경력 과학기술인 신청 (19.2월)	③과제-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19.3월)	④자료심사 (19.3월 ~ 8월)
기술멘토링 지원신청서 등 제출 (중소기업)	과제참여 지원서 제출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제검토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평가 (산기협, 평가위원회)	진단, 기술·경영 등 지도 및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② 청소년 과학교육 부문 *별도 공지 ○ 제출(신청방법) :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신청) - 홈페이지 : www.reseat.or.kr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비우로 37길 37 산기협 회관 10층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ReSEAT 프로그램 담당자 앞 - E-mail : reseat@koita.or.kr			
4. 선정심사			
○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록자 중 적격 심사를 통해 과제참여 대상자 선정			
○ 산학인 전문분야 구성한 매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필요성, 인력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매칭			
※ 청소년 과학교육 부문 별도 공지			
5. 기타			
○ 신청(제출) 자료는 심사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각종 증명서류나 신청(제출) 자료(가) 허위사 실적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안내 관련 웹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사업공고			
○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reseat.or.kr)			
○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기술인력지원팀 ReSEAT 프로그램 담당자			
- 전화 : 02-3460-9038, 9063, 9064, 9068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